

나주시, 인공태양 상용화 연구시설 유치 팔 걸었다

운병태 시장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방문 입지 장점 등 설명 의지 전달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산업 육성 조례 제정 시설 구축 근거 마련

나주시가 '수소 1g으로 석유 8t의 에너지'를 얻는 '인공태양 상용화 연구시설'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운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을 방문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의지를 전달했다.

운 시장은 오영국 핵융합연구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주시가 그간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추진한 노력과 입지적 장점, 잘 갖춰진 산·학·연 인프라 현황 등을 적극 설명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 속 수소를 원료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대용량의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무한 청정에너지' 생산 장치다.

고갈되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꿈의 에너지원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료공급을 중단하면 즉시 가동이 멈춘다는 점에서 폭발이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해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발전소 개념이 아닌 향후 본격적인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실증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미 나주시는 전남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와 협력해 지난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태양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을 선점해 추진하

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또 6월에는 인공태양 관련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전남도-나주시-한국기속기-플라즈마연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8월에는 인공태양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출범해 인공태양 관련 기업육성과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120만㎡ 규모의 에너지국가산단, 40만㎡규모의 산학연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최적의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나주가 글로벌 에너지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유치에 시민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운병태(왼쪽 위) 나주시장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찾아 오영국(오른쪽 가운데) 원장에게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나주시 제공>

장성군, 황룡강변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볼링장·탁구장·체육회관 들어서 내년 중 착공 2026년 9월 완공

장성 황룡강변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선다.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읍 기산리 일원 2973㎡에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서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에는 볼링장, 탁구장, 체육회관 등이 들어서며 현재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당초 2025년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볼링장을 짓기로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결을 받았지만, 건립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모여있는 만큼 시설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수용했다.

장성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인 '성장장성' 디자인을 반영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실시계획과 재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건립을 추진한다.

2026년 10월로 예정된 생활체육대축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달 앞선 9월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전남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설계비 지원을 요청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군민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하반기 인재양성 장학생 201명 선발

다음달초까지 3억4000만원 지급

함평군은 2024년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201명을 선발해 12월 초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 10월 중순까지 장학생 모집공고를 거쳐 심사 및 인재양성추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1명을 선발했다.

함평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242명의 학생에게 3억60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지원 규모는 3억4000여 만원이다.

대학생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요건에 따라 생활비 명목의 학업장려금도 지급한다.

함평군 관계자 "함평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적발 땀 과태료 부과·수사의뢰 조치

강진군이 강진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완전히

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해당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강진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군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2024 함평 겨울빛축제가 열리는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 야경. <함평군 제공>



화순군이 최근 재가암환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숲 마실,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열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암환자·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36명 참여 숲길 걷기 등 힐링 시간

화순군이 최근 재가암환자 및 가족 36명을 대상으로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숲 마실,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 치유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암 환자와 가족들은 ▲숲길 걷기 ▲숲속 명상 ▲천연 염색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및 팬플룻 연주 ▲시 낭송 등 숲속에서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가지며 몸과 마음이 즐거웠다.

앞서 지난 5월과 6월 4회에 걸쳐 보건소 '만연산'과 함께하는 숲길 따라 오감 치유도 재가암환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증진 ▲숲 체험 ▲영양관리교육 ▲탈모 방지 한방샴푸 및 아로마 스프레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과 서로 공감하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힘이 생기고 맑은 공기도 쉼이 좋았다"며 "좋은 추억 만들어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마련해 줘달라"고 말했다.

화순군은 매년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암환자 294명에 대해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양 불균형 우려 대상자에게 영양제와 고단백 영양식을 지원하고 있다.

박마리 화순군 보건소장은 "이번 숲 치유프로그램으로 암 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통해 일상의 어려움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가암환자들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의료지원,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의 밤, 빛의 향연'... 겨울빛축제, 26일 막오른다

다음달 25일까지 엑스포공원에서 '빛금토' 체험·먹자·판매존 운영

함평 겨울빛축제가 '함평의 밤, 빛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겨울빛축제의 주요 테마는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야경이다. 이이남 미디어아트 작가의 대형 야의 전시물이 중앙광장을 빛낼 예정이다.

함평군은 전통적인 자연경관에 접한 예술을 융합해 함평 엑스포공원을 단순한 겨울 여행지가 아닌 하나의 대형 아트 전시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엑스포공원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국화대전에서 인기였던 국화 조형물 등 다양한 포토존과 경관 조명을 설치해 밤마다 빛의 향연을 펼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특별 체험 부스와 판매존 등 '빛금토 체험존'을 운영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빛금토 먹자존'과 '빛금토 판매존'에서는 군고구마, 국화빵, 떡볶이 등 간식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도 함께 판매한다. 매주 토요일에는 '겨울빛 콘서트'와 'EDM 파티'를 진행해 저녁 시간마다 색다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함평 겨울빛축제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산타 복장 체험, 루돌프 머리와 야광 페이스페인팅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중 매일 밤 9시까지 추억공작소, 나비 곤충표본전시관, 자연생태관, 친환경농업관 등 엑스포공원의 다양한 전시관을 운영해 실내에서 편안하게 함평을 탐방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 겨울빛축제는 함평 엑스포공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겨울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행사"라며 "빛과 자연, 예술을 한데 엮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농특산물 홍보 팜파티 상시 개최

금성면 커피농장 세번째 마켓 열어

담양군이 팜파티를 상시 개최해 딸기, 곤충 식품, 커피 등 지역 내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있다.

담양군 농촌생태체험관광협회는 금성면에 자리한 커피농장에서 도시소비자 50명을 초청해 '제3회 팜 파티&마켓'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팜 파티는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

(Party)의 합성어로 농가에서 소비자를 초대해 공연·체험활동을 매개로 먹거리와 농산물도 판매하는 행사다.

담양군은 특별한 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상시적으로 팜파티를 기획해 히어로하우스 딸기농장, 프로틴팜토리 곤충 농장 등에 이어 올해 세번째 팜파티를 개최했다.

커피농장은 담양에서 직접 생산한 커피 이야기를 주제로 방문객들에게 로스팅, 핸드드립 체험 등을 선보였다.

또 협의회 소속 10개 농장의 체험 상품·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팜 마켓(Farm Market) 행사도 함께 열었다.

임영주 커피농장 농장주는 "고향인 담양으로 귀농해 커피농장을 만들고, 무산소 발효 커피 브랜드 '골드캐슬'도 만들게 됐다"며 "팜파티를 계기로 담양의 농·특산물을 도시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